

경제와 노후생활

■ 경제

- 동 향 : 5월 국내경제 미진한 회복세
- 이 슈 : (경제)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구조 변화
(산업) 자동차산업 핵심경쟁력의 중심 이동

■ 노후생활

- 테 마 :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향하여
- 세 심 록 : 해헌경장 -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매다
- 북 리 뷰 : 제7의 감각 - 전략적 직관

□ 동향

○ 5월 국내경제 미진한 회복세

-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연휴효과 등으로 소비가 전월에 비해 소폭 회복되었지만 생산과 투자는 감소하여 다소 부진한 경기흐름을 나타내었음

- **생산** : 광공업생산은 기계장비(2.7%), 석유정제(3.2%)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7.4%), 반도체 및 부품(-4.7%)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2.7% 감소하였고, 서비스업은 도소매(1.5%), 예술·스포츠·여가업(6.9%) 등이 늘어 전월대비 0.6% 증가
- **소비** : 소매판매는 준내구재(-2.3%)는 감소, 통신기기·컴퓨터 등의 내구재(3.9%)는 증가하였고, 연휴 효과로 음식료품 등의 비내구재(1.7%)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1.4% 증가
- **투자** : 설비투자는 일반기계류 등이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1.4% 감소. 건설기성은 토목공사 실적부진으로 6.0% 감소

○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2.9%로 확정치 발표

- 2014년 1분기 GDP 성장률은 소비지출 감소, 수출 둔화 등으로 전기대비 -2.9% 기록

- **GDP 성장률** :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2.9%는 4월 발표한 잠정치 0.1%와 지난달 발표한 수정치 -1.0%를 크게 밑도는 수준(2009년 1분기 GDP성장률 -5.4%이후 최저)
- **소비지출** : 전체 GDP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지출 증가율은 건강보험 지출둔화 등의 원인으로 크게 위축되어 5월 수정치 3.1%에서 확정치 1.0%로 크게 하향 조정
- **수출** : 1분기 수출은 5월 수정치인 -6.0%에서 확정치 -8.9%로 하향 조정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	2013		2014						
		연간	연간	3/4	4/4	1/4	3월	4월	5월	6/13	7/4
실물지표	GDP성장률(%)	2.3	3.0	1.1	0.9	0.9	-	-	-		
	제조업생산지수(%)	0.7	-1.6	0.1	1.8	0.7	2.7	2.5	-2.3		
	소비자물가지수(%)	2.2	1.3	1.4	1.1	1.1	1.3	1.5	1.7		
	실업률(%)	3.2	3.1	3.0	2.8	4.0	3.9	3.9	3.6		
	경상수지(억달러)	508.4	798.8	237.8	248.4	151.3	73.5	71.2	93		
금융지표	국고채(3년)(%)	3.13	2.79	3.01	2.90	2.87	2.87	2.88	2.84	2.81	2.67
	원/달러(원)	1,126.8	1,095.0	1,112.2	1,062.1	1,069.0	1,070.9	1,044.6	1025.0	1,019.9	1,016.8
	코스피지수(P)	1,930.4	1,960.5	1,917.7	2,009.3	1,946.1	1,952.4	1,991.2	1994.1	2,003.1	1,994.4

주 : 제조업생산,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며, 금융지표는 6/16~7/4의 평균값임.

□ 이슈 : (경제)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구조 변화¹⁾

- 내수침체형 흑자 구조로 전환

최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원화 절상 압력이 지속되고, 통상마찰 압력이 가중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상수지의 구조 분석을 통해 대규모 흑자원인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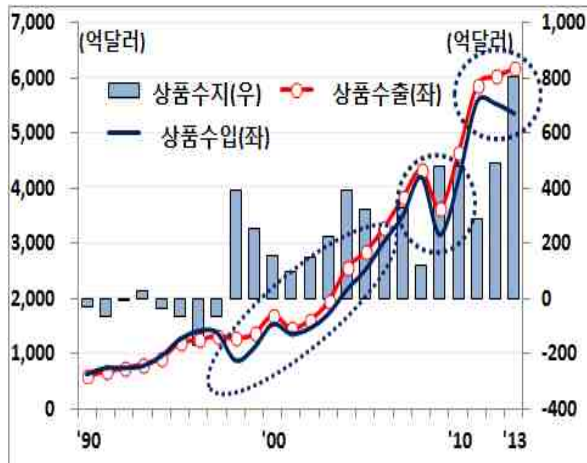
첫째, 최근 경상수지는 수출이 증가하나 수입은 감소하는 '내수침체형 흑자'이다. 과거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시기를 살펴보면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호조를 보이지만, 수출이 더 크게 증가하는 '호황형 흑자'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부진하나, 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최근에는 수출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감소하면서 수출입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내수 경기 침체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수출과 수입의 격차가 커짐으로 인해 경상수지가 대폭 확대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둘째, 해외건설 수주 비중이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과 수주 실적은 늘어나면서 해외 건설 수주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1990년 건설수주는 100억 달러 내외에 불과했으나, 2013년 714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건설업체의 플랜트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해외플랜트 수주 역시 2000년 84억 달러 수준에서 2013년 637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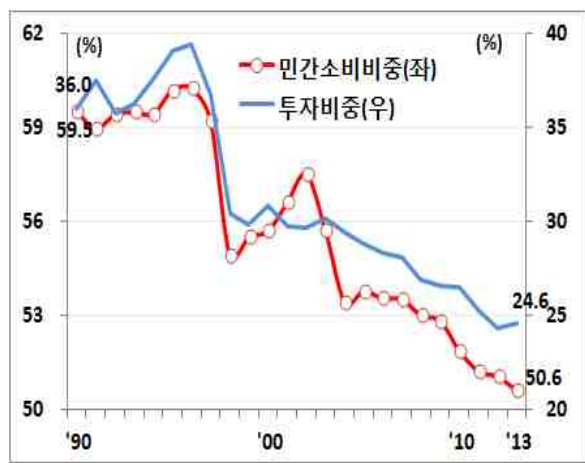
셋째, 국내선사의 해외 운송물량 비중도 증가하였다. 1999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입이 확대되면서 해외 수출입물동량이 급증하였고, 국내물동량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만, 외환위기와 글로벌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해운업황이 악화됨에 따라 운송량 증가세가 정체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동차와 IT를 중심으로 한 수출물량이 확대되고, 국내 해운 선사들의 경쟁력 강화 및 물동량 유치 노력으로 국내 선사의 해외물동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1)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구조 변화” 14-26호 (2014. 06. 27.) 에서 발췌 요약.

<상품수출입과 상품수지추이 1990~2013>



<GDP대비 내수(민간소비, 투자) 비중 추이>



넷째,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급증하였다. 중국인 관광객은 경제성장과 함께 그 숫자가 급증하여 2013년 전 세계 관광객의 9.0%(약 1억 명)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인 해외관광 지출액은 2013년 1,286억 달러에 달하여 해외 관광지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 한류에 대한 관심과 쇼핑 및 관광지로서의 한국의 매력 증가 등으로 중국인 외래방문객(입국) 숫자가 급증하였다. 1990년 18만 명 내외였던 중국 관광객은 2013년 433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전체 외래방문객 중 중국인 비중은 4.7%에서 35.5%로 기존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 관광객(275만 명)을 능가하였다. 다섯째, 해외투자소득과 현지 생산 수출이 증가하였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 자원개발, 부동산, 금융시장 등 해외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해외직접투자액은 1990년대 연평균 40억 달러 내외에서 2013년 371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소득과 배당, 이자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투자소득이 흑자로 전환되고, 흑자폭도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해외 현지 수출(중계무역과 가공무역 수출)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반도체나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의 해외생산기지가 확대되면서 해외 현지 수출 비중도 크게 늘어났고, 이로 인해 가공무역 수지나 중계무역수지가 크게 확대되었다.

종합 평가하면, 최근 경상수지는 내수 침체로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해외건설, 해외운송,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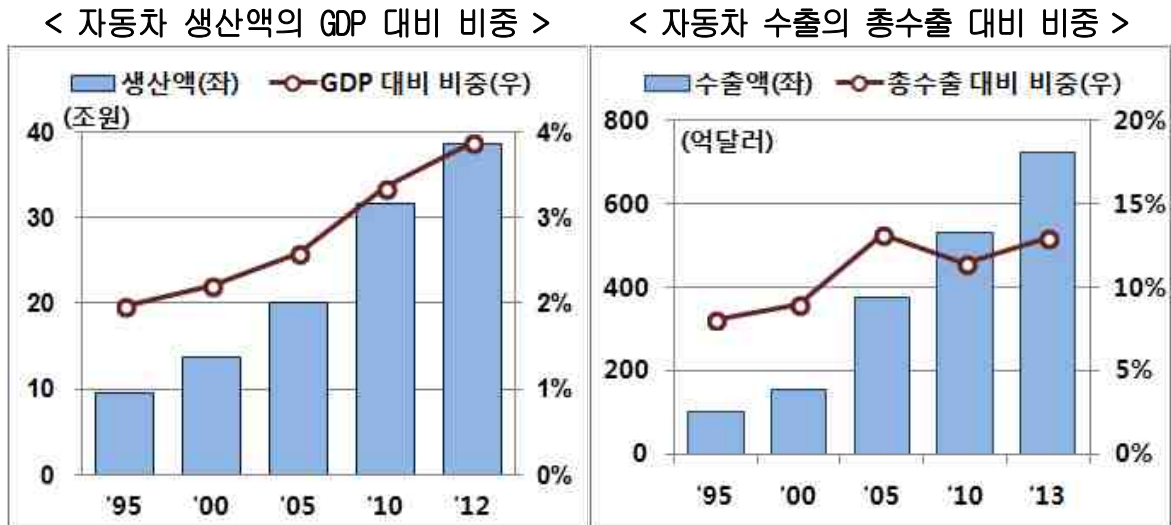
국 관광객과 해외투자 및 생산 등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경상흑자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에도 세계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은 늘어나겠지만, 투자 및 소비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내수침체형 경상수지 흑자'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의 내수침체형 경상수지 흑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정책 방향을 유효수요 확대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에 맞춰야 한다. 최근 내수 침체 양상은 소비여건 및 심리 약화에 따른 수요 측면에 기인하는 바 유효수요를 확대 창출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둘째, 유효수요의 확대를 위해 재정의 조기 집행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편성된 재정을 조기 집행하여 내수 경기를 조속히 진작시키는 한편, 재정 역량을 성장잠재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 인하 및 추경 편성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셋째, 중·저소득층의 소비여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질의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눈높이 일자리를 확대하여 소득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중·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층은 부담을 늘리는 합리적 세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규제완화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안전 및 생명 관련 규제는 강화하되, 경제관련 규제는 과감히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관광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내수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관광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대하여 소비여력이 높은 고소득층과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소비활성화 및 서비스 관련 일자리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경제연구본부 최성근 선임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 이슈 : (산업) 자동차 산업의 핵심경쟁력의 중심 이동²⁾

자동차산업은 국내 총생산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후방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자동차산업의 핵심경쟁력(core competency)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고의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스마트폰 트렌드에 대처하지 못하고 추락한 전철을 자동차 산업에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혁신 트렌드, 가치사슬의 변화 및 경쟁구조 재편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 재구성.
주 : 실질 부가가치생산액(2005년 기준).

자료 : 무역협회, SITC에 의한 무역통계 재구성.
주 : 도로주행 차량 기준.

(1) 자동차의 진화에 따른 핵심경쟁력의 변화

최근 자동차의 진화 트렌드를 살펴보면, 첫째, IT 융합 기술이 발전하고 안전성, 편의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등 차량 시스템의 지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둘째, 휘발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내연기관 엔진차에서 전기 배터리와 모터로 구동되는 동력원의 전기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차량 연비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차체의 경량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와 같은

²⁾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자동차산업 핵심경쟁력의 중심이동” 14-22호 (2014. 06. 23) 에서 발췌 요약.

자동차산업 핵심경쟁력의 변화는 가치사슬 변화, 산업구조 재편으로 이어지며 완성차 및 부품 소재 공급 기업들에게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2) 자동차산업 가치사슬의 변화

(소재) 철강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비철금속 및 합성수지 관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철강업계는 자동차용 경량 소재에 의한 대체위협에 대응하여 경량소재 개발에 주력해왔으나 추가적인 경량효과 실현에는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 및 화학 소재 업계는 자동차용 소재 개발에 적극 진출하면서 철강재를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 전체 중간투입액 대비 철강 1차제품 중간투입액 비중은 1990년 10.9%에서 2010년 7.2%로 감소한 반면, 플라스틱 제품의 중간투입액 비중은 같은 기간 4.5%에서 6.6%로 증가하였다.

(부품) 자동차 부품의 전장화(電裝化), 동력원의 전기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계장비 및 엔진 부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전자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내연기관 엔진 및 관련 부품의 비중이 감소하고 전기차 관련 부품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자동차 제조원가 중 전자부품 및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5%, 2050년에는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 기존 완성차 제조업체의 그린카, 스마트카 생산 비중이 증가하는 한편, 신규 진입자의 등장 및 주도권 역전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존의 내연기관 승용차 판매량이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2030년에는 전기차 등의 판매대수가 기존 내연기관 엔진차의 판매대수를 추월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동계통의 단순화, 핵심경쟁력의 변화 등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신규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2003년 설립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 모터스,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등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프라) 전기차의 보급 확대는 정유업체의 사업모델 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이며, 스마트카의 확산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규모는 2015년 1,438억엔에서 2025년 2,901억엔으로 성장할 전망이며, 기존의 정유업체, 전력업체, 완성차업체 등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과 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정부는 실제 도로에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제공하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3) 산업구조 재편 전망

자동차산업의 핵심 부문은 기계부품 제작 및 조립 중심에서 IT제조, 소프트웨어, 첨단소재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ICT 분야의 특허분쟁이 자동차 영역으로 확산되며 그린카 및 스마트카 관련 특허 출원 및 소송이 급증있다. 또한, 자동차 운영체제(OS) 및 기술표준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핵심기술 획득을 위한 M&A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동차산업내 기업 간 관계는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구조에서 거래 관계의 개방도가 높아지는 수평적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부품 공급자와의 거래는 자회사 거래, 공존적 협력사 거래 중심에서 병렬적 협력사 거래, 시장 거래 중심으로 변화 것으로 보이며, 제한된 협력사 중심의 고착된 구조에서 다양한 플레이어의 등장 및 퇴출이 활발해지는 유동적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스마트카 및 전기차 관련 인프라 확충, 기술표준 정비, 안전 및 환경기준 마련 등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는 스마트폰 등과 달리 도로교통 시스템 및 공공 충전인프라와의 연계가 불가피하여 정부 정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주요국 정부는 전기차, 스마트카를 자동차산업과 ICT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아이টে으로 선정하고 유리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지각변동을 새로운 성장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속성장이 예견되는 스마트카, 그린카 사업과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자동차산업 내 산학연 협력 활성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 강화 등 혁신 지향적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초기 시장 창출 및 혁신 지향적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를 정비하고 스마트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장우석 연구위원 (2072-6237, jangws@hri.co.kr)

□ 테마 :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향하여

○ 요약

세계적 석학 프랑스 기소르망은 사회의 3대 기둥은 정부·시장·박애인데 우리나라는 정부와 시장은 잘 발달되어 있으나 박애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박애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복원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Nisbet이라는 학자는 현대 대중사회의 특징인 소외, 심성적 단절, 비참여, 분절성이 공동체와 반대되는 상황이며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곧 현대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동체의 이념을 통해 사회문제와 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공동체를 개인의 친밀성, 감정적 깊이, 도덕적 확신, 사회적 응집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관계로 사회의 공동적 유대를 재확립하는 것이라고 보고 사회적 공동적 유대, 즉 공동체 문화를 위한 과제를 기부문화에서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필자가 여행하면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부문화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산되는가를 소개하였다. 캘리포니아 조깅코스에 딸을 기억하며 부모가 산책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증한 소박한 의자에서부터, 캐나다 밴쿠버의 아름다운 해변에 두 여성을 기억하기 위해 기부된 벤치, 어머니 병을 낫게 해준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부된 미국 오레곤주 포트랜드 근처의 그로토수도원과 명상센터,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통을 보여준 미국 스텐포드대학의 스텐포드 부부와 로댕 작품 등을 학교에 기부한 미래세대를 위한 통큰 기부, 중국사람들의 기부문화와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시민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거리, 이름 감춘 13조원 기부천사 등 다양한 기부문화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기부에 인색한 문화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결국 가족에서 출발하는 보통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기부는 부모에서 자녀로 세대를 거쳐 이어짐으로써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기초가 될 것이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삶의 지혜이다. 왜냐하면 기부자들은 나눔으로써 자신이 더 많이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 왜 공동체인가?

- **세계적 석학인 프랑스의 기소르망의 최근 신문인터뷰(중앙일보, 2014. 5.10)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함**
 - 그는 인터뷰에서 사회의 3대 기둥은 정부·시장·박애(philanthropy)이며, 우리나라는 정부와 시장은 잘 발달되어 있으나 박애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 시장과 정부는 각각 이윤과 권위의 영역이며, 선의(goodwill)에 바탕을 둔 것이 박애이며, 이 또한 중요한 삶의 영역임을 강조함
 -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박애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복원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함

- **사회적 연대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사회문제는 무엇인가?**
 - Nisbet(1985)³⁾이라는 학자는 현대 대중사회의 특징인 소외, 심성적 단절, 비참여, 분절성은 공동체와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특징은 곧 현대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함
 - 또한 평등, 협동, 친목, 우애와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공동체의 이념은 사회적 연대를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이념들이 가족이 추구하는 이상이기도 함
 -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문제의 해결, 궁극적으로는 가족문제의 해결을 이루고 사회적 연대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 의식이나 공동체 정신일 것임

○ 공동체문화와 가족의 관계

- **가족은 공동체의 원형이며, 가족관계를 통해 공동체의식이 형성됨**
 - 가족이 삶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가족은 사회구성원인 보통사람들의 일상에서의 “다양한 삶”이 형성, 발전되는 곳이며, 역사·문화적 실체이기 때문에 가족이해는 한 국가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기초이기 때문임
 - 또한 사회제도 중에서 가족이 유일하게 세대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들의 관계는 생물학적(출산)이며, 합법적·관습법적 특성으로 인해 확장된 보다 큰 조직(친족관계)과 연계되어 역사, 전통, 세대관계를 공유하게 됨
 -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공동체의식에 대한 개인의 생각도 가족을 통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음

³⁾ Nisbet, R.(1994). The problem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2), 112-123.

○ 공동체문화를 위한 과제 : 기부문화와 가족의 역할

- 기부문화와 공동체: 세상의 다양한 기부사례들

- 앞에서 말한 Nisbet이라는 학자는 공동체는 고도의 개인의 친밀성, 감정적 깊이, 도덕적 확신, 사회적 응집 및 시간적 연속성에 의하여 특징 지워지는 관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의 공동적 유대를 재확립하는 것이라고 함
- 본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공동적 유대, 즉 공동체 문화를 위한 과제를 기부문화에서 찾고자 함. 이를 위해 이런저런 곳을 여행하면서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부문화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산되는가를 소개하고자 함

- 하나, 가족을 기념하는 소박한 기부 1



주 : 철마 전경



주 : 코트니의 부모가 기증한 의자, 캘리포니아 월넛크릭

- 세상에는 빌게이츠와 같은 대단한 기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 따뜻하고 소박한 기부도 많이 있음
- 2006년 교환교수로 캘리포니아의 월넛크릭(Walnut Creek)에 살 때 주변에 철마(Iron Horse Trail)라는 멋진 조깅코스가 있었음
- 부자동네답게 곳곳에 말이 있는 집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 보이는 곳에 앉아 쉴 수 있는 곳에 소박한 벤치가 있고 거기에는 "Courtney, M.(1990년 7월-1997년 5월)과 그녀가 사랑했던 말들을 기억하며"라고 쓴 코트니(Courtney) 부모가 기증한 의자가 놓여 있었음
- 7살에 죽은 딸을 가슴에 묻은 부모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쉼터를 만듦으로써 딸을 기억하고 싶었을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기 앉을 때마다 코트니 부모와 어린 딸을 위해 기도했을 것임

- 가족을 기억하는 소박한 기부2

- 캐나다 밴쿠버의 아름다운 해변에 놓인 의자에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1994년과 1997년 각각 40대의 젊은 나이에 죽은 린(Lynn)과 테레사(Teresa Cavaliero)를 기억하는 가족들이 기증한 의자가 있는데 기일도 아닌데 누군가 이들을 기억하며 가져다 놓았을 꽃이 짙은 내리쬐는 햇빛에 아직도 싱싱함.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이 있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



주 : 린과 테레사를 위한 의자, 밴쿠버.

- 가족을 기념하는 소박하지만 큰 기부3

- 미국 오레곤주 포트랜드에서 약 30분 거리에는 그로토(The Grotto)라는 아주 멋진 수도원이 있음. 이곳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주면 성당을 짓겠다고 기도한 한 신자가 부모님의 병환이 낫자 기부를 통해 이뤄진 곳임
-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원에 자신의 소원을 빌러 오는데, 이들을 위해 또 다른 기부자에 의해 세워진 한쪽이 유리로 만들어진 명상센터((The Grotto: Place for solitude, Peace and Prayer)는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곳임



주 : 그로토, 미국 오레곤주

- 가족을 기념하며 지은 미래 세대를 위한 통 큰 기부 :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전통

- 상위신분에 따르는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해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고귀한 신분일수록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통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볼 수 있음
-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중간에 위치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야자수가 끝없이 이어진 학교 입구도, 정말 아름다운 학교건물도, "천국의 문"이나 "갈레의 시민(Burghers of Calais, 1884-1895)" 같은 로댕의 걸작품들도 아님



주 : 스탠포드 대학교의 조각상들.

- 박물관 유리관 너머에서나 겨우 볼 수 있었던 이런 유명한 작품이 아무런 울타리나 담도 없이 학교 여기저기 널려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이런 작품들이 다 기증된 것이며, 굳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곁에 있다는 점이 인상적임

- 중국 사람들의 기부문화



주 : 중국 사람들의 기부,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의 동아시아센터.

-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의 동아시아센터는 중국인들에게 자부심을 주기에는 충분한 공간임. 공자가 태어난 산둥지역에서 가져온 돌에 공자의 기본 가르침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5자의 한자에 영어로 그 뜻과 내용을 새겨서 동아시아연구센터(*C. K. Choi Building for East Asian Research Center*) 옆에 놓았음
- 이 대학 뿐 만아니라 UC Berkely를 포함한 많은 대학의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센터는 중국인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건물이 있음

- 시민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거리

- 미국 알래스카의 앵커리지 거리에 있는 수많은 시민 기부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도블럭은 걷는 사람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깨끗이 쓰고 보존해야 하겠다는 생각마저 들게 함



주 : 기부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도블럭, 알래스카.

- 남이 모르게 하는 기부와 기부문화의 정착

- 미국 국세청 자료를 통해 드러난 이름 감춘 13조원 기부천사에 대한 보도가 연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더욱이 인터뷰에서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또 많은 돈을 기부했다고 해서 굳이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동아일보, 2014. 5.12) 고 말했다고 함
- 기소르망의 인터뷰 기사에서는 "프랑스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하면 '내가 최고라서 성공했다. 박애 활동에 돈을 좀 내놔야겠다'고 생각한다. 성공한 미국인들은 '나는 운이 좋았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한다."(중앙일보, 2014. 5.10) 고 하니 이유가 무엇이든 결국은 이들 사회는 기부문화가 정착되어있다는 것임

○ 우리의 기부문화

- 공동체를 위한 기부에 인색한 기부문화

-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상부상조를 통한 공동체의 나눔이 강조되었으나 현대에 오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한 기부문화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임. 수해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TV에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방송이 나오거나 연말연시가 되면 요란스럽게 기부금 모으는 행사가 연례적으로 열리지만, 보여주기 위한 기부행사인 경우도 있음. 실제로 기업들의 사회적 환원은 여전히 미흡하고, 기부가 기부로 끝나지 않고 권력을 행사하려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음
- 세계 여러 곳에 코리아타운이 있지만 중국인들처럼 돈을 들여 자신들의 상징물을 세우는 데는 좀 인색함. LA의 코리아타운에 한국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었던가? 내 집 내정원은 잘 가꾸어도 공동체를 위한 기금에는 인색함
- 사회복지단체인 굿네이버스 관계자에 의하면 사회복지기관이나, 비영리민간재단 등의 기부금액이 증가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림. 기부자들은 나눔으로써 자신이 더 많이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알게 된다고 함
- 아름다운 가게에 대한 훈훈한 소식이나, 화려한 돌잔치를 열기보다 돌잔치 때 모은 기부금과 일 년간 모은 저금통을 기부한 부부의 이야기와, 결혼 후 매일 만원씩을 저금해 결혼 1주년 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마련한 유명인, 공개적으로 입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연극배우, 말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숨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우리사회가 아직도 살만하다고 생각함
- 가족에서 출발하는 보통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기부는 부모에서 자녀로 세대를 거쳐 이어짐으로써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기초가 될 것임. 결국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재산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삶의 지혜일 것임

상명대학교 정현숙 교수 (2287-5215, hschung@smu.ac.kr)

□ 세심록(洗心錄)

○ 해현경장(解弦更張) :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매다

올해는 갑오경장 120주년에 해당하는 해이다. 갑오경장은 1894년 일본의 강압으로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혁신 내각이 실시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근대적 개혁 조치다. 갑오경장의 어원은 해현경장(解弦更張)이며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팽팽하게 당겨 조율한다는 뜻으로, 기존의 낡은 정치·경제·사회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해현경장은 한서(漢書)의 동중서전(董仲舒傳)에 나오는 표현이다.

한나라 무제(武帝)는 국사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동중서라는 유학자에게 자문을 구했다. 동중서는 무제에게 현량대책(賢良對策)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한나라는 진(秦)나라에 이어서 세워졌지만, 진나라의 구제도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거문고의 줄이 맞지 않으면 반드시 줄을 풀어 고쳐 매어야 비로소 소리를 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琴瑟不調甚者, 必解而更張之, 乃可鼓之). 정책이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용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하며, 그런 후에야 비로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바꾸어야 할 것을 바꾸지 않으면, 비록 천하제일의 연주가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마땅히 개혁해야 할 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라 할지라도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정치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120년 전 실시되었던 갑오경장은 근대 봉건 사회 제도를 청산하고 근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다. 현재의 대한민국도 1894년처럼 개혁하지 않으면 결코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올해는 한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대적인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고뇌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행복을 이해할 수 없다.
황금이 불로 정제되는 것처럼 이상도 고뇌를 거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다**
- 도스토예프스키(러시아 소설가, 1821~1881)

□ 북리뷰 : 제7의 감각: 전략적 직관⁴⁾

윌리엄 더건(William Duggan)은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경영학 부교수로서, 대학원생 및 기업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직관을 가르치고 있음. 20여 년 동안 전략 자문가 및 컨설턴트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 10년 동안 전략적 직관에 관한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음.

○ 주요 내용

- 전략적 직관은 모든 영역에서 인간이 달성하는 탁월한 성과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공통적인 메커니즘으로, 4개의 핵심 요소로 구성

- 평범한 직관(모호한 육감이나 본능적인 직감)은 일종의 감정(혹은 느낌)인 반면, 전략적 직관은 선명하고 반짝거리는 생각
- 전문가 직관(expert intuition or blink)은 뭔가 익숙한 것을 인식할 때 점프하듯 순식간에 도달하는 빠른 속도의 생각을 의미. 전문가 직관과는 달리 전략적 직관은 항상 느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새로운 상황에서 작동
- 전략적 직관이 작동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①역사적 사례, ②냉철함, ③섬광 같은 통찰력 ④결단력

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 사례

-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과학자인 뉴턴은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
- 일반적으로 과학적 진보는 새로운 이론으로 건너뛰는 사고의 도약을 통해 발생하는 대신에 과거의 요소들을 가져다가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

② 예기치 못한 것을 예상하고 어떤 사례를 활용할지 미리 속단하지 않는 냉철함

- 냉철함은 섬광 같은 통찰력이 찾아올 수 있도록 사고를 자유롭게 하는 정신적인 훈련
- 예를 들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과 칼을 앞세워 상대방을 무찌르는 전략이 아니라 적들이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전략을 수립

③ 올바른 사례를 선택하고 결합하는 섬광 같은 통찰력 그 자체

- 섬광 같은 통찰력은 우리가 추구할 목표와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 방침을 알려줌
- 이성, 논리, 창의력, 직관, 상상력을 하나의 사고 작용으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

④ 불확실성과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력

- 섬광 같은 통찰력에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도 포함되어 있음
- 전략적 직관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실천하려고 할 때, 처음으로 대면하게 될 것들 사람의 비웃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이 중요

4) 윌리엄 더건 지음, 윤미나 옮김, “제7의 감각: 전략적 직관(Strategic Intuition)”, 비즈니스맵, 2008.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 HRI 리더스 포럼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만찬

장소

서울시 주요호텔

시간

19:00 - 19:35 만찬 및 인사교류
19:35 - 19:45 경제·산업동향 브리핑
19:45 - 21:00 주제 강연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시사점)
-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잠인정신)
-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혜택

- 명사들의 주제강연(경제·경영·인문·사회·예술)
- CreativeTV(usociety.co.kr)VIP멤버십 제공
- 매회 경제·경영 베스트셀러 제공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연회비

- 1명 가입시 100만원(1인)
- 2명 가입시 90만원(1인)
- 3명 이상 가입시 80만원(1인)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Tel. 02-2072-6246,6309
Fax. 02-2072-6249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